

구례군 산수유 발효 기능성 식초 개발·상품화 성공

국산 발효 증균 활용...화이트·발사믹·발아현미 식초 등 5종 대봉감·우리밀 등 확장 가능성...지역농산물 경쟁력 높여

구례군이 최신 발효기술과 지역 자원을 접목한 산수유 식초를 개발해 상품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구례군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의 신기술 보급 사업인 산수유를 활용한 식초 상품화 사업을 통해 산수유 화이트 식초·산수유 발사믹 식초·GABA 발아현미 식초·애플 산수유 비니거·유기농 산수유 식초 5종의 기능성 식초 제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된 제품은 겨울철에도 발효 가능한 혁신적인 발효기술과 구례산 산수유와 구례 토착미생물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타 제품과 차별화 및 경쟁력을 높였다는 게 큰 특징이다.

무엇보다 기존의 식초는 여름철에는 발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만, 겨울에는 발효가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발효 기술은 농촌진흥청에서 기술 이전 받

은 새로운 증균을 사용해서 겨울철에도 안정적인 발효가 가능해 집으로써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 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구례 물·산수유 마를 토착 미생물을 결합해 지역성을 강조했다며, 이로써 지역 전통과 가치를 보존해 차별화시킨 제품을 생산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갖게 됐다.

이번에 개발된 식초들은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제품들로 주목받고 있으며, 지역 경제와 전통 문화의 가치를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2024년도 농촌진흥청의 신기술 보급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지리산과하나되기산수유마을영농조합법인'이 추진하고 있다.

군은 이번 식초들은 빠르면 1월 중 상품화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성과는 산수유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봉감·우리밀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발효식품 개발로도 가능성을 확장하며, 지역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지리산과하나되기산수유마을영농조합법인' 강승호 대표는 "산수유의 기능성을 발효식초로 완성해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어 기쁘다. 발효 기술과 치유농업을 접목해 구례가 치유와 건강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상품 개발을 넘어 지역 농산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중요한 사례이다. 앞으로도 발효식품 산업과 특산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강승호 지리산과하나되기산수유마을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새로 개발한 산수유 식초를 선보이고 있다.

구례군이 개발에 성공한 식초 5종

▲산수유 화이트 식초=기본 빙초산을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식초로 깔끔한 맛과 높은 활용도가 특징이다.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하고, 몸을 알칼리화 하는데 도움을 준다. 음식 조리 외에도 세제, 섬유유연제, 소독 등 다양한 생활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산수유 발사믹 식초=이탈리아 모데나 지방의 발사믹 식초를 오마주해 높은 산도와 독특한 풍미를

제공하는 고부가가치 식초이다. 산수유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세포 노화 방지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 샐러드 드레싱, 고급 요리 소스 등으로 다 이터트 식단 및 건강 지향 소비자에게 적합하다.

▲GABA 발아현미 식초=건강기능성 성분을 극대화한 식초로, 특히 정신 건강 및 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발아현미에 함유된 GABA 성분은 신경 안정, 스트레스 완화, 수면 개선 등에 효과적이다. 건강음료·소스·요리에 적합하다.

▲애플 산수유 비니거=과일의 풍미와 산미를 조화롭게 담은 제품으로 신선하고 가벼운 맛이 특징이다. 산수유와 사과와 조화로운 체내 항산화 효과를 증진시키고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다. 음료, 샐러드 드레싱, 디저트 소스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 가능하다.

▲유기농 산수유 식초=화학 첨가물을 배제한 친환경 건강 식초로 유기농 산수유의 천연 성분이 면역력 강화와 항염 효과를 갖고 있다. 건강음료, 소스, 가정용 식초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식초이다.

광양시 새 랜드마크 118m '동천 빛어울림교' 준공

백운산 형상화...경관조명 등 설치

광양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를 '동천 빛어울림교'가 지난 27일 준공됐다.

30억원이 투입된 보도교 '동천 빛어울림교'는 광양읍 원도심과 용강·목성지구를 잇는 핵심 보행 인프라로, 길이 118m·폭 3m 규모이다. 기존 동천 산책로와 자연스럽게 이어져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며, 주변 자연경관과 백운산을 형상화한 디자인에 야간 경관조명이 더해져 새로운 도시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양시는 동천 빛어울림교와 더불어 132억원 규모의 동천 경관광장 조성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용강회전교차로에서 동천 변을 잇는 대규모 녹지공간인 경관광장은 2025년까지 토지보상을 마무리하고, 시민들을 위한 여가공간으로 조성된다.

또한 이 사업들은 광양시가 추진하는 동천·서천 합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과도 연계된다. 총 80억원이 투입되는 생태축 복원사업은 2026년 10월까지 동서천 합강 지점의 자연환경을 복원하고 도시 전역에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장기 프로젝트다.



'동천 빛어울림교'.

광양시는 동천 빛어울림교 준공을 시작으로 경관광장 조성, 생태축 복원 등을 통해 단절된 도심을 연결하고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녹색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며, 시민 삶의 질 향상, 관광 유치,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오승택 광양시 공원과장은 "동천 빛어울림교 준공은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보장할 뿐 아니라, 동천을 중심으로 경관광장과 생태축 복원이 이뤄질 큰 그림의 시작"이라며, "이곳이 시민의 휴식처이자 시의 생태문화 랜드마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여수시, 세계섬박람회 특별교부세 65억 확보

주행사장 진입로 확장에 30억원

여수시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국제행사 개최 특별교부세 65억원을 확보하면서 사업 추진에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로써 시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섬박람회 위상을 제고해 국제행사 준비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사업은 ▲섬박람회 주행사장 진입로로 확장 및 환경정비 사업(30억원) ▲섬박람회 주·부행사장 주변 스마트 조명등 설치(15억원) ▲개도 부행사장 테마관광자원 개발사업(20억원) 등 총 3개 사업이다.

'섬박람회 주행사장 진입로로 확장 및 환경정비 사업'은 주행사장 입구 삼거리 도로 확장도 노을길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진도 주행사장 진입도로 확장을 통해 돌산 지역의 정체 구간을 해소하고, 노을길을 조성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쉽고 힐링의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섬박람회 주·부행사장 주변 스마트 조명등 설치' 사업은 야간 개장 시 관람객의 가시성 향상 및

방범 사각지대 해소로 행사장 안전을 확보하고, 에너지 절약에 따른 탄소중립에도 이바지할 전망이다.

'개도 부행사장 테마관광자원 개발사업'은 개도 마녀목공원 및 광장, 주차장 조성 등 인프라 구축으로 섬과 바다가 어우러진 특색있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여수시는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체계적이고 신속한 공사 추진과 핵심 콘텐츠 구축, 교통 대책 등 현안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올해 상반기부터 국회의원 과 도시의원 등 정계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중앙 부처에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적극 건의한 결과"라며 "섬박람회 사업 추진 동력을 얻게 된 만큼 빈틈없는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61일간 돌산을 진도지구와 여수세계박람회장, 개도, 금오도 일원에서 세계 최초 '섬'을 주제로 개최된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순천시, 양성평등정책 '우수지자체' 장관상

순천시가 지난달 26일 2024년 제2회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양성평등정책대상은 지방자치단체와 기관이 실시하는 우수한 양성평등정책을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한 시상제도이다.

시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라는 비전으로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 조성, 안전과 건강권 증진, 양성평등 기반 확산을 목표로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 ▲찾아가는 시민 양성평등 교육 추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이혼 아이 병행돌봄 서비스 ▲여성·가족친화마을 조성 사업 ▲여성 1인가구 안심홈트 지원사업 등 양성평등 기반 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점이 우수지자체로 평가받았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순천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양성평등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여성과 남성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구례군, 다음달부터 '공공심야약국' 운영

구례군이 새해부터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밤 8시부터-11시까지(3시간) 문을 여는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한다.

공공심야약국은 2022년에 시작한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으로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았다.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심야시간에 운영되며, 약사가 복약지도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야간과 휴일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과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전라남도 지정을 받은 구례군 첫 공공심야약국은 구례읍 소재의 광주약국, 우리네온누리약국으로 전라남도와 구례군의 지원을 받아 365일(연중무휴) 운영한다. 광주약국(구례읍 중앙로 36)은 수요일을 제외한 주 6일 동안 문을 열어, 우리네온누리약국(구례읍 동면제1길 31)은 수요일에만 운영한다.

공공심야약국 운영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보건사업과 의약관리팀(061-780-2068)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고흥군, 가수 전영록 등 연예인 10명 홍보대사 위촉

고흥군은 국내 연예계에서 풍부한 경험과 왕성한 활동을 하는 가수와 개그맨 10명을 고흥군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고흥군 홍보대사로 위촉된 인물은 개그맨 최홍림과 가수 전영록, 정수라, 김용임, 우연이, 김양, 현진우, 진이랑, 이미리 등 총 10명이다. 이들은 80·90년대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의 스타들이며, 현재까지도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유명인들이다.

개그맨 최홍림을 비롯한 10명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우주항공 중심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고흥을 알리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고흥군은 이번엔 새로 위촉된 홍보대사와 기존 홍보대사와 함께 우주, 드론,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한 균형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이번엔 새로 위촉된 홍보대사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자, 석류, 김 등의 고흥의 해물물산과 고흥 3대 미래 전략산업인 우주, 드론, 스마트팜을 널리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곡성군 청소년 스테디카페.

곡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연중무휴 운영

이용률 전년비 300% 증가 따라

곡성군이 올해부터 청소년 문화의 집 두 곳을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곡성군은 지난 2023년 두 곳의 청소년 문화의 집에 청소년 전용 스테디카페를 설치하였고, 지난해 초 시범운영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했다. 또한 시설 개방 확대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종사자 증원을 통해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를 완료했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 스테디카페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로,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곡성청소년문화의집 관계자는 "관내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문화의 집의 북라운지, 노래연습실,

넌텐도 게임실, OTT 상영실, 동아리 활동실, 댄스연습실, 스테디카페 등의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월요일까지 시설을 개방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의 정기 휴무일인 월요일에도 청소년들이 건전한 문화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전했다. 또 "2024년, 청소년 전용 스테디카페와 코인노래방이 조성된 이후, 곡성청소년문화의집의 이용률은 전년 대비 300% 가까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올해부터 시설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청소년들이 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설 이용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곡성=김대성 기자 bigkim2@kwangju.co.kr